JKSCI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31 No. 10, pp. 259-267, October 2026
https://doi.org/10.9708/jksci.2026.31.10.259

Effects of the Empowerment Enhancement Program on Self-Esteem and Friendships in Multicultural Children

Jung-chul Heo*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the empowerment enhancement program had on self-esteem and friendship in multicultural childre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multicultural children living in K metropolitan city and pre- and post-test were conducted on them. The results were presented as follows: In respect to the empowerment enhancement program, of the sub-factors of self-esteem in the subjects, general, social and family-oriented facto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while self-esteem in school did not. Of sub-factors in the friendship, the program had significant effects on presence of and loyalty to friends, persistence of friendship, adjustment to friends and community life with friends. The results above indicated that the program afore-mentioned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self-esteem and friendship in the subjects. In particular, to enhance self-esteem and friendship in the subjects, when college student visited them to encourage them to enhance their advantages and potential power, their self-esteem were greatly enhanced. The subjects also had positive changes in friendship when the college students paid attention to enhancement of their friendship and helped them to build good relationship with friends. In particular, they were able to have new friends through group activities including skating, watching musical and movies as real help.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hat to enhance self-esteem and friendship in multicultural children, the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program politically and encourage community colleges and college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gram.

▸ **Key words**: Empowerment, Empowerment Enhancement Program, Multicultural Children, Self-Esteem, Friendship

• First Author: Jung-chul Heo, Corresponding Author: Jung-chul Heo
*Jung-chul Heo (jcheo@kwu.ac.k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26. 08. 25, Revised: 2026. 09. 14, Accepted: 2026. 10. 13.

Copyright © 2026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http://www.ksci.re.kr pISSN:1598-849X | eISSN:2383-9945
www.kci.go.kr

[요 약]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K 광역시 소재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가운데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교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 관계의 하위요인 가운데 친구의 유무와 신의, 교제의 지속성, 친구 간의 적응, 친구와의 공동생활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대학생들이 다문화 아동을 방문하여 그들의 장점과 잠재력을 찾아주고 격려해 주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었을 때 친구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스케이트 타기, 뮤지컬, 영화관람 등 단체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친구 관계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대학과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 다문화 아동, 자아존중감, 친구 관계

I. Introduction

2026년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학생의 4%를 차지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 중에 초등학생이 전체 다문화 학생의 5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학생이 25.3%, 고등학생이 16.6%를 차지하였습니다[1]. 국내 만 7세부터 18세까지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다문화 아동은 사회적 편견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원만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다문화 아동의 따돌림 이유가 단순히 피부색과 외모로 인한 경우가 많고, 언어발달지체와 문화적 부적응으로 수업의 이해도가 낮고 매우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를 보인다[2]. 또한, 다문화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우울 정도가 높으며, 일반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3].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한 데 비해 이들 가정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며, 가정 내 언어문제와 문화차이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찍부터 심리·정서적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4]. 특히 학령기에 접어드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인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학습 부진과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5].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령기는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매우 큰 시기로 또래와 함께하는 환경 속에서 성취감을 경험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적 행동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 관계의 정서적 지지 속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된다[6].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령기는 환경적 어려움과 반복된 실패의 경험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며 이는 발달의 위기로 연결된다[7]. 다문화가정 아동은 자신의 사회적 환경과 신체적·언어적 특성에 의해 위축되고, 교사와 또래 관계에서 자신감 없는 태도를 나타낸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은 외모와 문화의 차이, 차별, 사회적 편견, 또래 관계 기술의 미숙함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8]. 위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겪게 되는 또래 관계의 어려움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술치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됐었다[5][9][10][11]. 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강점과 재능을 찾아주고, 그것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임파워먼트를 활용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임파워먼트를 활용한 연구들은 청소년 대상의 학교

www.kci.go.kr

적응과 또래 관계, 자립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12-15].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16].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 아동은 참여하지 않은 다문화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가?

둘째,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 아동은 참여하지 않은 다문화 아동보다 친구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가?

II. Related works

1. Empowerment Enhancement Program

임파워먼트란 자기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강화시키는 행동으로서, 외적 행동의 변화 모습보다는 사람의 내적 신념의 변화과정이며, 문제보다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취적인 방향으로 옮겨가는 긍정적인 개념이다[17]. 또한,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에 접근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18].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가진 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힘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며, 임파워먼트의 시작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변화에 있다. 그리고 임파워먼트는 고립된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지지가 필수이다[19]. 아동의 특성상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20]. 특히 다문화 아동들은 이질적 문화 차이로 인해 가정 내 혼란을 겪고 부모의 가치관의 차이 속에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며 학교에서는 우울, 부적응, 스트레스, 관계성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5]. 그러므로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단계, 형성단계, 유지단계, 종결단계로 구성하였다.

2. Self-esteem

아동 자신의 적응 행동과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의미 있는 변인 중의 하나는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즉,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이며, 자신의 강점능력, 성공, 중요성, 가치, 역량 등을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21].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22-23].

즉, 자기 자신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평가적 차원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다[24].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믿고 인정하며,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학교적 자아존중감으로 구성하였다.

3. Friendship

친구관계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연령을 가진 또래가 행동이나 규칙을 공유하며 상대방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을 기본 요건으로 하여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이해하며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으며 공유하는 지속적인 상호관계라고 할 수 있다[26]. 이처럼 친구 관계는 집단 안에서 비교적 같은 연령 혹은 비슷한 수준의 아동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외형적이거나 내재적인 일련의 행동 규칙의 지배를 받으면서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말한다[27]. 이 시기의 아동들은 서로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같은 비밀을 공유하며 또래와 함께 하는 학습 및 집단 활동 속에서 성취감을 경험하고 서로 간에 영향을 받으며 친 사회적 행동 유형을 습득하고 긍정적 심리·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자아존중감과 자아발달에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이다[28].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란 아동 상호 간에 긍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친밀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친구 관계의 하위요인에는 친구의 유무와 신의, 교제의 지속성, 친구 간의 적응, 친구와의 공동생활이 있다.

4. Empowerment Enhancement Program and Self-esteem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참여하지 않

www.kci.go.kr

은 중학생들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가지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 미래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며,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29]. 그리고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또한,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31].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피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19]. 뿐만 아니라,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Empowerment Enhancement Program and Friendship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효과를 검증한 결과 '두려움을 넘어 다시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화되었으며 친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14]. 또한,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에서도 친구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가 친구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16].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전문계 고등학생의 친구 간의 적응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뿐만 아니라,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빈곤 아동의 친구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친구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Research Hypothesis

앞 장에서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다문화 아동들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다문화 아동들 간에는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 1 :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다문화 아동들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다문화 아동들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H 2 :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다문화 아동들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다문화 아동들보다 친구 관계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2. Program Configuration

본 연구의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은 도기봉 외[19]가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내용을 근간으로 다문화 아동들에게 맞추어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15회기동안 대학생들과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으며 아래 [표 1]과 같다.

Table 1. Empowerment Improvement Program

Stage	Session	Topic	Activity objectives
Introduction	1	Program Guide, Contract pre-evaluation Introduce yourself	Program Introduction, Completion of Contract Pre-Examination Introduce yourself
	2	What are you proud of?	Find your strengths, Compliments
	3	What do I want?	Knowing My Desire
Formation	4	Discover one's potential(talent)	Check your potential and discover what you're doing well
	5	Case meeting 1	Inspection of mentoring activities
	6	Drawing my dream	Drawing my dream, encouraging
	7	Watching Cultural and artistic performances	Watching a musical
Maintenance	8	Practicing Action Plan 1	Tell your friend first, praise your friend, and hear compliments from your teacher
	9	Practicing Action Plan 2	Doing homework every day, running errands for parents, and listening to compliments from parents
	10	Watching movies	Watching movies
	11	Case meeting 2	Inspection of mentoring activities and checking difficulties
	12	Compensa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e outcome of actions	Compliment for positively changing behavior and look at what needs to be changed
	13	Field trip activities	Experiential activities
	14	Organizing mentoring activities	What you liked doing mentoring activities, expressing your gratitude to each other, and complimenting each other
Close	15	Closing meeting	Mentoring closing ceremony, effectiveness check(post-evaluation)

www.kci.go.kr

3. Experimental Design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 test-Post test Group Design)로써 독립변인 실험집단의 다문화 아동들에게는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종속 변인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2. Pre-post Experimental Design

Group	pre-test	Program progress	post-test
experimental group	O_1	Empowerment Program (x)	O_2
control group	O_3		O_4

Experimental group: Program progression, Control group: Do not proceed with the program

4. Subject of Study and Data Collection

2025년 9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5회기를 진행하였으며, K 광역시 소재의 다문화 아동 중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35명을 실험집단으로, 통제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다문화 아동 중에서 단순 무작위 추출법으로 35명을 선발하여 총 7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5. Research Tools

5.1 Self-esteem Measurement Tool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24]의 자아존중감 항목표를 최보가와 전규연[34]이 번안한 아동용 자아존중감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학교적 자아존중감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 α)값은 다음과 같다.

Table 3. Self-esteem Question numbers by factor of the scale

measure	Sub-factors	Item number	pre (α)	post (α)
Self-esteem	general self-esteem	1,5,9,13,17,21	.897	.804
	social self-esteem	2,6,10,14,18,22,25,28,31	.807	.885
	family self-esteem	3,7,11,15,19,23,26,29,32	.787	.755
	school-like self-esteem	4,8,12,16,20,24,27,30	.764	.815
Sum		total of 32 questions		

5.2 Friendship Measurement Tool

친구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형태[35]가 개발한 것을 본 연구의 특성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친구 관계 척도는 친구의 유무와 신의, 교제의 지속성, 친구 간의 적응, 친구와의 공동생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 α)값은 다음과 같다.

Table 4. Friendship Question numbers by factor of the scale

measure	Sub-factors	Item number	pre (α)	post (α)
Friendship	presence of friends	1,2,3*,4,5*,6*	.844	.799
	continuity of companionship	7*,8,9*,10*,11,12*	.817	.826
	friend-to-friend adaptation	13*,14*,15*,16,17*	.752	.817
	co-living with friends	18*,19,20	.835	.826
Sum		total of 20 questions		

* a reverse question

6. Data Analysis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1)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 실시 전에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등분산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한 후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의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을 하였다.

IV. Results

1. Comparison of pre-testing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1.1 Self-esteem Pre-inspection comparison

자아존중감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전 t-te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Comparison of pre-testing of Self-esteem scale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Self-esteem	Group (N=70)	M	SD	t	p
general self-esteem	Experiment (n=35)	3.088	.278	.160	.842
	Control (n=35)	3.069	,415		
social self-esteem	Experiment (n=35)	3.006	.297	-.286	.613
	Control (n=35)	3.043	.362		
family self-esteem	Experiment (n=35)	3.555	.451	.295	.604
	Control (n=35)	3.510	.412		
school-like self-esteem	Experiment (n=35)	3.421	.537	.235	.635
	Control (n=35)	3.396	.632		

www.kci.go.kr

Table 5의 결과와 같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인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학교적 자아존중감이 p>. 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1.2 Comparison of Friendship pre-test

친구 관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전 t-te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Comparison of pre-testing of Friendship scale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Friendship	Group (N=70)	M	SD	t	p
presence of friends	Experiment (n=35)	3.333	.428	-.158	.837
	Control (n=35)	3.345	.564		
continuity of companionship	Experiment (n=35)	3.382	.512	.289	.602
	Control (n=35)	3.342	.572		
friend-to-friend adaptation	Experiment (n=35)	3.176	.547	-.439	.533
	Control (n=35)	3.296	.762		
co-living with friends	Experiment (n=35)	3.470	.334	.495	.524
	Control (n=35)	3.310	.436		

Table 6의 결과와 같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친구 관계 하위요인의 친구의 유무와 신의, 교제의 지속성, 친구 간의 적응, 친구와의 공동생활이 p>.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2. Comparison of pre- and post-testing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2.1 Comparison of pre- and post-examination of self-esteem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결과값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7. Comparison of pre- and post-testing of Self-esteem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Self-esteem	Group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general self-esteem	Experiment	3.088	.278	3.404	.244	-3.32	.004
	Control	3.069	.415	3.129	.351	-.312	.586
social self-esteem	Experiment	3.006	.297	3.418	.606	-3.14	.006
	Control	3.043	.362	3.093	.536	-.299	.597
family self-esteem	Experiment	3.555	.451	3.849	.408	-2.23	.040
	Control	3.510	.412	3.430	.517	.367	.512
school-like self-esteem	Experiment	3.421	.537	3.647	.496	-1.41	.176
	Control	3.396	.632	3.286	.684	.407	.497

Table 7의 검사 결과와 같이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가운데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는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학교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먼저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멘토링 활동들이 다문화 아동들의 일반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신의 장점 찾기', '나의 잠재력 발견'하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다문화 아동들이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일찍부터 해외를 다니면서 다른 문화를 체험했던 것이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했던 것 같다. 다음으로 멘토링 활동은 다문화 아동들의 가정적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매주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에서 숙제하기, 부모님 심부름하기, 착한 행동하기, 부모님께 칭찬받기를 통해서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도록 도왔다. 어떤 아동은 가정에서 밥상도 차리고, 부모님께 안마도 해드리고, 동생 목욕도 시켜주는 착한 행동을 하면서 부모님께 칭찬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멘토링 활동은 다문화 아동들의 사회적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스케이트 타기, 영화, 연극 관람, 단체식사 등을 통해서 다문화 아동들끼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으며, 처음엔 대부분이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많이 웃고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멘토링 활동들이 다문화 아동들의 사회적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활동은 다문화 아동들의 학교적 자아존중감 향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다문화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낮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문화 아동들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말을 못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문화 아동들의 학교적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담임선생님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며, 다문화 아동들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2 Comparison of Friendship pre- and post-test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들의 친구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친구 관계에 대한 사전·사후 결과값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www.kci.go.kr

Table 8. Comparison of pre- and post-testing of Friendship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riendship	Group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presence of friends	Experiment	3.333	.428	3.726	.533	-2.76	.014
	Control	3.345	.564	3.325	.615	.236	.631
continuity of companionship	Experiment	3.382	.512	3.813	.420	-2.90	.010
	Control	3.342	.572	3.292	.574	.307	.592
friend-to-friend adaptation	Experiment	3.176	.547	3.541	.478	-2.33	.033
	Control	3.296	.762	3.386	.673	-.371	.508
co-living with friends	Experiment	3.470	.334	4.039	.439	-3.53	.003
	Control	3.310	.436	3.340	.478	-.285	.608

Table 8의 검사 결과와 같이 실험집단의 친구 관계 하위요인 중에서 친구 유무, 교제 지속성, 친구 간 적응, 친구와의 공동생활에서 p<.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의 친구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오랜기간동안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되었고, 다른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특히, 단체활동으로 스케이트 타기, 영화, 연극 관람, 식당에서 아이들과 전체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주 멘토링활동을 통해서 멘토들이 다문화 아동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칭찬해주면서 친구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다문화 아동들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주었던 활동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친구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V. Discussion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가운데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학교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 중에서 다문화 아동들이 자신의 장점 찾기, 자신의 잠재력 발견하기 활동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특히, 대체로 다문화 아동들이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해외를 일찍 경험한 것들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멘토링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칭찬받을만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19][30-31]. 하지만,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 자아존중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무관심과 성적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의 친구 관계 하위요인 가운데 친구의 유무와 신의, 교제의 지속성, 친구 간의 적응, 친구와의 공동생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 중에서 단체활동으로 스케이트 타기, 뮤지컬관람, 영화관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더욱 활발하게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친구 관계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주 멘토들이 다문화 아동들이 학교에서 겪는 친구 관계의 어려움과 고민을 들어주고, 친구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었던 것이 친구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이 친구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14][16][33].

VI. Conclusions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자원인 대학생들을 활용하여 다문화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장점 찾기, 잠재력 발견하기, 아동이 잘하는 것, 특히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아동들이 단체활동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 아동들이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들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 아동들이 학교에서 친구 관계를 잘 형성하고, 학업에도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

www.kci.go.kr

선생님들이 다문화 아동들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네 번째로,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 아동들이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하여 연구 대상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를 K 광역시 다문화 아동으로 국한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확장을 통해 일반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중에서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배정하여 선택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넷째, 집단 간 변화량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표본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인 연령, 문화적 배경, 성별 등에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EM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2026(KWU26-055)"

REFERENCES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tatistics on Multicultural Families", 2026.

[2] H. H. Yun, "The relation between peer relationship of and bicultural adjustment, communica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in multicultural children [Master's degree]", Daejeon: Univ. of Hannam, Aug. 2014.

[3] M. S. Kim, Y. K. Kim, A. N. Kim, H. J. Kim and S. M. Sung,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 welfare service provision",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4] J. H. Lim, H. R. Kim and H. J. Son, "A case study of art therapy for the improvement of a school maladjus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Clinical Art Psychotherapy, Vol. 11, No. 1, pp. 1-25, Apr, 2021. DOI : 10.34167/cliart.11.1.202104.1.

[5] S. Y. Jung, "A qualitative case study of group art therapy for self-ex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degree]", Seoul: Univ. of Konkuk, Aug. 2023.

[6] M. J. Jaegal, "A qualitative case study on art therapy for self-expression and spontaneity in a child from multicultural family [Master's degree]", Seoul: Univ. of Ewha Womans, Feb. 2019.

[7] H. R. Sim, "A single case study of art therapy on self-efficacy of early school age child [Master's degree]", Seoul: Univ. of Ewha Womans, Aug. 2016.

[8] H. J. Lee, "A case study on the change in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objective relations art therapy [Master's degree]". Daegu: Univ. of Daegu Cyber, Aug. 2021.

[9] H. J. Lee, J. W. Jung and J. H. Lim, "Case study on the change in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objective relations art therapy",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30, No. 3, pp. 131-160, Sep. 2023. DOI : 10.35734/karp.2023.30.3.008.

[10] E. A. Kang, "The influence of group expressive arts psychotherapy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from a multicultural family [Master's degree]". Seoul: Univ. of Myongji, Aug. 2018.

[11] K. M. Kim, "A study in how art therapy affect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friendship relationship of the multicultural child [Master's degree]". Busan: Univ. of Silla, Aug. 2016.

[12] S. H. Moon, "The effects of the empowerment program for improvi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Doctoral degree]", Jeonju: Univ. of Jeonju, Feb. 2008.

[13] Y. R. Kim, S. K. Chung and S. K. Yoo, "Effects of empowermen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0, No. 1, pp. 163-190, Aug, 2007. DOI : 10.16975/kjfsw.2007..20.163.

[14] E. S. Song, "Beyond fear, back to people : exploratory study on adolescents' experiences of interpersonal trauma and empowerment [Doctoral degree]", Suwon: Univ. of Kyonggi, Aug. 2025.

[15] H. S. Kim, "Mediator effect of empowerment on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of poor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6, No. 3, pp. 135-157, Aug, 2004.

[16] Y. S. Choi, "A study on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empowerment influence on their feeling of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oral degree]", Seoul: Univ. of Seoul Christian, Aug. 2014.

[17] J. A. Conger and R. N. Kanungo, "The empowerment process: intergrating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3, No. 3, pp. 471-482, 1988. DOI : 10.5465/AMR.1988.4306983.

[18] K. Y. Byeon, "Development of the group program on empowerment for victim students of school bullying and its effectivenes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7, No. 1, pp. 263-295, June, 2006.

www.kci.go.kr

[19] G. B. Do, J. Oh, and J. I. Shin, “The effectiveness of the group program for empowering and enhancing self-esteem of school violence victims in high school girl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 pp. 149-174, Jan, 2011.

[20] A. R. Joo and I. H. Park, “Effects of an empowerment education program in the prevention of internet games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0, No. 2, pp. 255-263, Apr, 2010. DOI : 10.4040/jkan.2010.40.2.255.

[21] L. D. Kirby and M. W. Fraser,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W. Fraser(ED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Washington, DC: NASW press. Michael S. (1997). Sharing power: participatory public health research with california teens. Journal of Social Justice, Vol. 24, No. 3, pp. 11-22, 1997.

[2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23] 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1979.

[24]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In T. A. Wills(Ed.). Basic Process in Helping Relationships. New York: Academic Press, 1967.

[25] M. K. Kim, “The effect of taekwondo high school instructors leadership type on players self-esteem goal achievement, athletic performance [Doctoral degree]”, Seoul: Univ. of Hanyang, Aug. 2012.

[26] W. H. Hartup, “Social relation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Journal of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No. 2, pp. 120-126, Feb, 1989. DOI : 10.1037/0003-066X.44.2.120.

[27] K. M. Kim and E. J. Lee, “A case study on art therapy for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improvement of a child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Korean Arts Therapy, Vol. 18, No. 2, pp. 161-181, Nov. 2018. DOI : 10.18253/kart.2018.18.2.08.

[28] U. H. Kim. “A case study on art therapy for self-expression of a child in a single-parent family [Master's degree]”. Seoul: Univ. of Ewha, Feb. 2018.

[29] G. Y. Gwak, “A study on awarenes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ping in youth empowerment programs [Master's degree]”, Seoul: Univ. of Hanyang, Aug. 2009.

[30] M. S. Cho, “The effects of empowerment program group social work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6, No. 3, pp. 125-140, 2009.

[31] P. S. Yu, “The analysis of effect on the improvement program of empowerment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5, No. 7, pp. 1-21, 2008.

[32] J. C. Heo, “Effect of empowerment enhancement progra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on prob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7, No. 1, pp. 1-24, Jan, 2020. DOI : 10.21509/KJYS.2020.01.27.01.1.

[33] H. Y. Le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for poor children on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a research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Doctoral degree]”, Seoul: Univ. of Hanyoung , Feb. 2014.

[34] B. G. Choi and G. Y. Jeon, “Research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steem inventory」(1)”, Journal of Human Ecology Research, Vol. 31, No. 2, pp. 41-54, Jun, 1993.

[35] H. T. Kim, “A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the measurement of ego-identity in korean youth [Doctoral degree]”, Daejeon: Univ. of Chungnam, Feb. 1989.

Authors



Jung-chul Heo received a B.S.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in 1994, a M.S.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in 2006, and a Ph.D.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in 2008.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he Career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Probation Adolescents Mentoring, and the field of Social Welfare Practice.

www.kci.go.kr